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론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신(神)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金 敬 旻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2024年 2月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론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신(神)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金 敬 旻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指導教授 蘇 明 仙

金敬旻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年 12月

심사위원장

손영석



위 원

소명선



위 원

박려욱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본론	5
1. 식인 행위와 추락한 도덕성	5
2. 수기에서 드러난 ‘신(神)’	16
3.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 욕구	26
4. 요구되는 ‘신(神)’	32
III. 결론	38
IV. 참고문헌	42
ABSTRACT	44

<국문 초록>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론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신(神)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 경 민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요약

『들불(野火)』은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가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대부분의 비평가가 전후 문학의 대표작으로 『들불』을 꼽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의 인간 내면을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대두되는 인육 섭취의 문제, 작품 구조, 신과 구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용, 계승하면서 주인공인 다무라(田村)의 수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의 존재를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연결시켜 재검토하고, 다무라가 자신의 수기 속에 신의 존재를 등장시켜야만 했던 이유를 고찰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다무라의 식인 행위에 대해 주목하여 도덕성이 추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무라에게 잠재되어 있던 식인 욕구는 그가 기아 상태가 되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무라는 원숭이 고기라며 나가마쓰(永松)가 건넨 육포를 받아먹기는 했으나, 육포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원숭이 육포가 인육이라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다무라였지만, 결국 사냥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다무라에게 있어서는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수기 속에서 다무라가 신의 존재를 갈구하는 모습과 신의 존재가

다무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다무라는 전장에서 고독한 방향을 하다 십자가를 발견했고 그것은 다무라의 신앙적 상념을 일깨웠다. 다무라는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로 향하며 구원을 위해 신의 존재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의 존재는 신체 좌우의 분열과 목소리라는 형태로 다무라에게 개입하여 다무라의 완전한 도덕적 추락을 막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 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무라는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이후 자신의 식인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행해진 것이며 자신은 인육 섭취를 혐오하는 도덕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려 했다. 또한 밥상을 앞에 두고 독특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과 도덕성을 드러냈고 전쟁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꼈다. 다무라는 무의식중에도 식인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식인 욕구는 인간에 대한 응징을 위한 반응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자신의 완전히 추락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수기에서 소환되는 신의 존재에 대해 고찰했다. 수기의 진위 판별은 어려웠고 신에 대한 다무라의 의구심으로 신의 존재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소거해 버린다면 다무라가 수기에서 신의 존재를 통해 시도한 자기변호와 도덕성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무라는 수기 속 신의 존재를 유지 시켜야 했던 것이다. 다무라는 수기에서 신의 존재를 통해 도덕성 회복을 시도했으며, 비록 인육을 섭취했지만 도덕적인 존재이고자 했던 다무라에게 있어 신의 존재는 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소환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들불』에서 드러난 수기 속의 신의 존재는 다무라의 완전히 추락해버린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며, 만약 다무라가 수기에서 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도덕성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교토(京都)제국대학에 진학하여 그곳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1909~1988, 이하 오오카)는 1944년 35살의 나이에 징병되어 필리핀 전선으로 향했다. 오오카는 필리핀 민도로(Mindoro) 섬에서 암호병으로 근무하던 중 이듬해 1월에 미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다 패전 후 석방되었고,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포로기(俘虜記)』(1948), 『들불(野火)』(1952), 『레이테전기(レイテ戦記)』(1971)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서 주목받았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오오카가 일관되게 묻고 있는 것은 전쟁 책임의 문제였다.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는 오오카의 전쟁관에 대해 “찢빵의 피는 바뀌었다고 해도, 오오카씨는 피가 아닌 팔소 자체, 즉 개개인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군부와 군부의 명령에 복종한 병사만이 아니라 모든 일본인들은 전쟁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패전일(1945.8.15.)을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달랐다고 말한다.¹⁾ 그리고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또한 일본의 전쟁에 대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직접 문제화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²⁾ 이처럼 노마 히로시(野間宏), 우메자키 하루오(梅崎春生),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시마오 도시오(島尾敏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전후파 작가로 손꼽히는 오오카는 다양한 작품으로 전쟁을 그려내며 일본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고찰 대상인 『들불(野火)』은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문체(文体)』에 일부가 발표되지만 중단되었고, 1951년부터 『전망(展望)』에 연재를 재개했다. 1952년 2월에 단행본이 간행되고 제3회 요미우리문학상(読売文学賞)을 수상하면서 전후문단에서 오오카는 문학적 지위를 굳히게 된다. 소설은 총 3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폐결핵에 걸려 소속 부대에서 버려진 후 홀로 전장을 방황하는, 고독한 패잔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들불』에 대해서 나카이 마사요시(中井正義)는 “멸망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운명에 사로잡혀 포로로 살아야만 했던 인간의 깊고 깊은 성찰이자 응시”의 작품으로 보았다.³⁾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의

1) 井上ひさし, 小森陽一 編著(2003) 『座談会 昭和文学史 第四巻』 集英社, p.332, p.338

2) 위의 책, p.338

경우는 『들불』이 없었다면 현대 일본인들은 전쟁을 제대로 응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반성은 저조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들불』 한편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틀림없이 일본인들의 정신 깊숙한 곳을 지탱했다”라고 평가했다.⁴⁾ 그리고 가와니시 마사아키(川西政明)도 하니야 유타카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전쟁을 겪은 후의 일본인들의 정신적 모델이 된 작품으로 『들불』을 꼽고 있다.⁵⁾ 이처럼 대부분의 비평가가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들불』을 언급한다.

총 39장으로 구성된 『들불』은 1장에서 36장까지가 다무라(田村)라는 주인공이 전장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이고 37장에서 39장은 일본으로 귀환한 다무라의 현재를 서술하고 있다.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 광인이 된 다무라가 쓴 수기임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구조이다. 소설은 일본의 패색이 짙어진 태평양전쟁 말기 필리핀의 레이테(Leyte) 섬을 배경으로 다무라 병사가 폐결핵 환자라는 이유로 소속 부대에서 쫓겨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병원에서도 쫓겨난 다무라는 홀로 전장을 방황하게 된다. 어느 날, 산 정상에서 해변가 근처 숲 위에 빛나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빛에 이끌려 마을로 내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필리핀 남녀를 만나게 되고 충동적으로 여자를 향해 총을 쏜 다무라는 곧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산속을 떠돌다 일본군과 마주치고 그들과 같이 퇴각하게 되는데 미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무라는 혼자서 항복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다시 전장을 방황하게 된 다무라는 극도의 굶주림을 느끼고 식인 욕구를 느낀다. 그러다 죽기 직전의 장교와 마주쳐 그에게서 자신을 먹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식인을 시도하지만 칼을 쥔 오른손을 왼손이 저지하며 식인에 실패한다. 그렇게 빈사 상태에 빠진 다무라는 동료였던 나가마쓰(永松)에게 발견되고 나가마쓰가 건넨 원숭이 고기로 기력을 회복한다. 원숭이 고기는 사실 인육이었으며 원숭이 고기를 얻기 위해 일본군을 향해 총을 겨냥하는 나가마쓰의 모습도 목격하게 된다. 이후 다무라는 나가마쓰가 또 다른 동료였던 야스다(安田)를 살해하고 식인을 시도하려 하자 이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신의 분노를 대행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마쓰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에서 기억은 중단된다. 현재 다무라는 정신병원

3) 中井正義(1989) 『大岡昇平ノート』 沖積舎, p.20

4) 大江健三郎 他(1989) 『大岡昇平の世界』 岩波書店, p.40

5) 川西政明(2001) 『昭和文学 中巻』 講談社, p.27

에 입원한 상태이며 의사의 권유로 쓴 수기가 소설의 1장에서 36장의 내용임을 시사하는 데서 소설은 끝이 난다.

『들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대두되는 인육 섭취의 문제, 작품 구조, 신과 구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인육 섭취와 관련된 경우,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반짝이끼(ひかりごけ)』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들불』을 검토하여 극한 상황 아래에서 윤리적 선택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그려내 높은 문학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다.⁶⁾

소설 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시다 히토시(石田仁志)의 논고는 『문체(文体)』에 발표했을 때와는 달리 『전망(展望)』에 연재가 시작되면서 소설 도입부의 「광인일기」 부분이 삭제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시다는 소설의 시작 장면의 변화는 독자들이 소설을 수용하는 ‘시간’의 교체와도 같다는 점에서, 『들불』을 구조적으로 ‘시간’으로 표현되는 자기의식의 이야기이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소설이라고 보고 있다.⁷⁾ 또한 도시모리 사다미(歳森貞美)는 소설 속 주제 및 전개 방식을 검토하며, 『들불』은 식인, 신, 광기 등 필수적 모티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도달점에 다양한 테마가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⁸⁾

‘신’과 관련된 연구로는 『들불』은 ‘신’의 표현 변화에 따라 구원을 모색해 가는 작품이고, 주인공이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전후 일본인이 당면한 ‘인간 실존’에 관한 문제이며, 『들불』에서 다무라가 구원을 모색한 과정은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에게 대한 ‘속죄’라고 지적한 논고⁹⁾와, 『들불』을 기독교 문학으로 간주하고 전쟁 상황 하에서 집단과의 결합 및 분리를 반복하는 과정에 의해 내면 속 신의 형상이 변화하는 것은 집단으로부터의 고립 갈구를 유발했다고 보는 논고가 그 예가 될 것이다.¹⁰⁾

한편, 결말에서 반복되는 ‘만약’이라는 가정적 단어의 의미 도출의 역설을 검증하며, 주인공의 추론에 의한 모순 발생과 우연적인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해 신의 존

6) 水溜真由美(2020) 「極限状況下における倫理: 武田泰淳「ひかりごけ」, 大岡昇平『野火』, 同『俘虜記』 『層: 映像と表現』(12)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院映像・現代文化論研究室, pp.60-73

7) 石田仁志(1997) 「大岡昇平『野火』論<時間>と自我」 『昭和文学研究』(34) 昭和文学会, pp.71-80

8) 歳森貞美(1969) 「『野火』論: 大岡昇平における中原中也」 『日本文學』(33) 東京女子大学, pp.48-65

9) 이금재(2000)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 나타난 전쟁과 구원 -〈신〉에 대한 표현 변화를 통하여」 『일본어문학』(8) 한국일본어문학회, pp.287-306

10) 이시준(2009)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 나타난 신-국가, 집단과 개인과의 거리 를 매개로」 『문학과 종교』(14(3)) 한국문학과종교학회, pp.165-191

재를 가정적으로 상정한 오오카의 집필 의도에 의문을 제시한 연구¹¹⁾도 확인된다.

그 이외에도 갈등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내면을 결합시키며 감정과 내면을 ‘비틀림’의 논리로 제시한 연구¹²⁾와 폐잔병의 모습을 주인공의 이동과 등장인물을 통해 분석한 연구¹³⁾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들불』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용, 계승하면서 다무라의 수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의 존재를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연결시켜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수기 속에 신의 존재를 등장시켜야만 했던 이유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수기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신지숙의 경우, 우연을 강제당한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이것을 식인 행위로 인해 추락해버린 도덕성 회복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식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다무라의 도덕성 추락의 과정을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수기 속 신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초점을 맞추며, 다무라가 신의 존재를 갈구하는 모습과 신의 존재가 다무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후의 다무라가 보인 행동과 사고에 주목하여 다무라의 죄의식과 자신의 추락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무라가 수기에서 신의 존재를 등장시켜야 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 속 드러나는 인육 문제와 신의 존재를 추락한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연결시켜 다무라의 수기 속에서 신이 어째서 요구되었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11) 신지숙(2007)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들불(野火)』론 - 가능성으로서의 신」 『일본학연구』(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11-134

12) 우연희(2007) 「오오카 쇼헤이 『들불』론-"비틀림"의 내면 풍경과 자연-」 『일본어문학』(35) 한국일본어문학회, pp.531-547

13) 우연희, 신인섭(2021) 「오오카 쇼헤이의 『들불(野火)』 다시 읽기 -병사의 이동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88) 한국일본어문학회, pp.287-306

II. 본론

1. 식인 행위와 추락한 도덕성

『들불』에서 다무라의 도덕성¹⁴⁾이 결여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살인 행위’이다. 전쟁터에서 살상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적국의 군인에 한해서이다. 소설 19장 「소금(塩)」에는 전장을 방황하다 빛나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마을로 내려간 다무라가 필리핀 남녀와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여성에게 다무라는 충동적인 분노를 느끼고 총을 쏘는 것에 이어 도주하는 남자를 향해서도 발포한다. 이와 같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한 다무라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동시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들불』에는 민간인 살상이라는 전쟁범죄뿐만이 아니라 식인 행위도 그려지고 있다. 『들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도덕성 추락 행위는 식인이며, 일반적으로 문명화된 인류 사회에서 인육을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다. 문화적으로 식인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양 섭취를 위한 동족 살해는 죄악으로 여겨진다.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인육 섭취의 욕망과 판단은 분명한 도덕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인육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21장 「동포(同胞)」에서이며, 다무라가 만난 한 일본군의 입을 통해서이다. 필리핀 여성을 살해한 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총까지 버린 다무라는 다시 홀로 전장을 헤매다가 일본군 부대를 발견하게 된다. 아래 인용은 다무라가 마주친 부대의 하사로부터 “레이테 섬의 병사들은 모두 파론폰으로 집결”¹⁵⁾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정보를 듣고 동행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14) ‘도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본고에서의 ‘도덕’의 정의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도리 및 행동 준칙이며 법률과 같이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닌 내면적 원리로서 한다. 따라서 ‘식인’ 행위는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로 간주한다.

15) 大岡昇平(1954) 『野火』 新潮文庫, p.106 *한국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며, 이하 『들불』로부터의 인용문에는 페이지 표기만 하기로 하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얼굴을 마주보았다.

“잘 부탁한다고? 오랜만에 속세의 냄새를 맡은 듯한 느낌이네. 누구나 데려다준다고 말한 건 아니야. 너 환자지? 따라올 수 있어?”

“가능한 해보겠습니다”

“후후. 우리들은 뉴기니아에서 인육까지 먹고 고생해 온 병사들이다. 함께 가는 건 좋지 만 우물쭈물대면 먹어 버릴거야.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彼等は顔を見合わせた。

“よろしくたあ、久し振りで娑婆の匂いを嗅いだような気がするな。誰も連れてってやるっていったわけじゃねえぜ。おめえ、病人だろう。随いて来られるのか”

“出来るだけやってみます”

“ふふ、俺達はニューギニヤじゃ人肉まで食って、苦勞して来た兵隊だ。一緒に来れないが、まごまごすると食っちゃうぞ” (p.106)

파론폰(Palompon)까지 그들과 행동을 같이하고자 하는 다무라에게, 하사는 이미 뉴기니아에서 인육을 먹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부대의 이동에 방해가 될 경우 다무라까지 먹어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하사의 발언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저 다무라에게 던진 농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24장 「삼거리(三叉路)」에서 또 한번 인육 문제가 언급된다.

다무라와 일본군은 파론폰을 향해 퇴각하던 도중, 하사가 아닌 또 다른 일병과의 대화에서 다시 인육 문제가 언급된다. 다무라에게서 소금을 얻은 한 일병이 다무라에게 하사는 냉혹한 인물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충고를 해준다.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인용해 보겠다.

“뉴기니아에서 사람을 먹었다는 게 정말입니까?”

“사람?”하고 말하고, 그는 꿈 꾸듯이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잠시 묵묵히 있었다.

“설마, 라고 해 두자…”

“ニューギニヤで人間を食ったって、ほんとですか”

“人間か”といって、彼は夢みるように眼を空へ向けて、暫く黙っていた。

“まさか、ってことにしておこう…” (p.127)

상기 인용에서 다무라가 하사로부터 들은 뉴기니아에서의 식인 경험을 되물자 일병은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21장 「동포」에서 들은 하사의 말이 다무라의 내면에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다무라가 인육의 시식을 시사한 하사의 말을 농담으로만 여기고 무시했다면, 상기의 대화에서 구태여 하사의 말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무라가 다시 되물을 만큼 다무라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장 「동포」와 24장 「삼거리」에서 처음으로 시사된 식인 문제는 이후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25장 「빛(光)」에서 다무라와 일본군 부대는 퇴각을 계속하고 미군이 지나다니는 국도를 몰래 통과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발각되어 공격을 받고 일본군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다무라는 항복을 결심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다시 전장을 떠돌게 된다. 그러다 극에 달한 굶주림은 다무라에게 식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얼마 전부터 나는 길가에 보이는 시체의 특징 한 가지에 주의하고 있었다. 해안 마을에서 봤던 시체처럼 영당이 살이 없어져 있던 것이다. (중략) 누군가 시체의 살을 가져간 것일까?—내 머리는 추리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알아차린 것은, 어느 날 내가 그다지 경직되어 있지 않은 시체 한 구를 보고,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고전적인 ‘메듀스호의 뗏목’ 이야기를 몰랐다면, 혹은 과달카날의 굶주린 병사가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잠시 동행했던 뉴기니아의 고참 병사에게 암시받지 못했다면, 과연 이때 내가 굶주림을 해결할 대상으로서 인육이 떠올랐을까는 의문이다.

少し前から、私は道端に見出す屍体の一つの特徴に注意していた。海岸の村で見た屍体のように、臀肉を失っていることである。(中略)誰が屍体の肉を取ったのであろう—私の頭は推理する習慣を失っていた。私はその誰であるかを見抜いたのは、或る日私が、一つのあまり硬直の進んでいない屍体を見て、その肉を食べた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しかしもし私が古典的な「メデュス号の筏」の話を知らなかったなら、或いはガダルカナルの飢兵の人肉食いの噂を聞き、また一時同行したニューギニアの古兵に暗

示されなかったら、果たしてこの時私が飢を癒すべき対象として、人肉を思いついた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pp.147-148)

결국 다무라는 극도로 굶주리게 되고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시체들의 특징에 주목한다. 기아 상태에서 시체들을 바라보는 다무라의 시선은 단지 죽은 자의 몸이 아닌 음식물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다무라는 식인 욕망을 통해 엉덩이 부분이 훼손된 이유가 곧 인육을 얻기 위함임을 알아차린다. 다무라는 자신 안에 내재된 인육 섭취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것이 식인 욕구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의심했고, 그 속에는 하사에게서 들은 뉴기니아에서의 식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21장과 2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인육 문제의 이미지가 기아 상황 속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장, 24장과는 달리 28장 「굶주린 자와 미친 자(飢者と狂者)」에서의 다무라는 매우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무라의 머릿속에 식인의 이미지가 떠오른 것이다. 결국 다무라는 인육 섭취 욕망이라는 비도덕적인 생각에 이르렀다. 21장에서 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식인의 시발점이 되었다면, 28장에서의 식인 욕망 감지는 결정적인 도덕성 추락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내 눈은, 인간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인간을 찾고 있었다. 새로운, 아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시체를. 비가 그치고 하늘의 노을이 언덕의 윤곽을 그려내고 있던 어느 해질녘, 나는 그 노을을 더 잘 보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한다) 언덕에 올라갔다.

私の眼は、人間ならば、動かぬ人間を探していた。新しい、まだ人間の形態を止めている屍体を。雨があ가って、空の赤が丘の輪郭を描き出していた或る夕方、私はその赤をもっとよく見るため(だったと思う)丘を登って行った。(pp.149-150)

위 인용문은 엉덩이 살점이 떨어진 시체를 보고 식인 욕망을 느낀 다무라가 일본군과 마주치는 장면이다. 생존한 동료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건네지만 다무라는 그들과 그 이상 교류하지 않는다. 다무라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다무라는 죽은 자, 특히 경직이 진행되지 않은 시체를 갈망한다. 다

무라가 언덕을 올라간 것은 노을을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섭취 가능한 시체를 찾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무라는 인육 섭취 욕망을 느끼고 비도덕적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린다.

다무라가 올라간 언덕 위에는 죽어가는 장교가 있었고 다무라는 그에게서 자신이 죽으면 먹어도 좋다는 말을 듣게 된다. 장교가 죽자 다무라는 장교의 살을 도려내려고 시도하지만 칼을 든 오른손을 왼손이 잡으며 이내 실패하고 만다. 왼손의 저지로 장교의 살점을 먹는 데 실패한 다무라는 굶주린 상태로 길을 걷다 강가에 서 빈사 상태에 빠진다. 아래 인용문은 다무라가 결국 탈진하여 강가에서 드러눕게 되고 그곳에서 우연히 ‘발’을 발견한 장면이다.

발이다. 닭발처럼 메마른 발가락이 다섯 개 붙어있다. 복사뼈에서 두 치 정도 위에서 잘려 있다. 단면의 중앙에는 뼈가 하얗게 암꽃술처럼 빛나고 있다. 피부가 말려든 살은 새카맣다. 아니, 그 솟아오른 까만 곡면은 잔물결이 치듯이 흔들리며 움직인다. 우글거리는 검은 파리였다. 인간의 발인 것 같다. 그러나 왜 여기에, 이 강가 모래밭에, 내 눈앞에, 이것이 있는 것일까? (중략) 누가 잘랐을까? 어째서 이 밝은 강가 모래밭에, 한쪽 발만, 생선처럼 내던져져 있는 것일까?

足である。鶏の趾のように、干いた指が五本揃っている。踝から二寸ばかり上で切れている。切口の中央には、骨が白く、雌蕊のように光っている。皮膚が巻き込んだ肉は、真黒である。いや、その盛り上った黒い曲面は、漣が渡るように、揺れて動く。ひしめく蠅の黒である。人間の足らしい。しかし何故ここに、この河原に、私の目の前に、これがあるのだろうか。(中略)誰が切ったのだろうか。どうしてこの明るい河原に、片足だけ一本、魚のように投げ出されているのだろうか。(p.164)

그 발은 인간의 것이며 몸으로부터 잘려 썩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다무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품는다. 문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무라의 의구심은 ‘발은 자연적으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절단된 것이며, 다른 부분은 인육 섭취를 위해 잘라갔기 때문에 발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일 것이다. 이 의구심은 후술할 또 다른 의구심과도 연결되며, 도덕성 추락의 결정적인 순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마쓰는 지그시 나를 보다가, 가방에서 검은 전병 같은 것을 꺼내 묵묵히 내 입에 쑤셔넣었다. 그때의 기억은 마른 마분지 맛 뿐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같은 것을 먹고, 나는 그것이 고기였다는 것을 알았다. 말라서 딱딱했지만, 부대를 나온 이래 몇 개월 간이나 입에 댄 적이 없는, 그 입안에 스며드는 지방의 맛이였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내 마음에 퍼졌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억제도 결의도 모두 환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동료들 만나, 호의라는 절차에 따르면, 나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먹고 있다. 게다가 그것은 내가 가장 자신에게 금지시키고 있던, 동물의 고기이다. 고기는 맛있었다.

永松はじっと私を見ていたが、雑囊から黒い煎餅のようなものを出し、黙って私の口に押し込んだ。その時の記憶は、干いたボール紙の味しか、残していない。しかしそれから幾度も 同じものを食べて、私はそれが肉であったのを知っている。干いて固かったが、部隊を出て以来何ヵ月も口にしたことのない、あの口腔に染みる脂肪の味であった。いいようのない悲しみが、私の心を貫いた。それでは私のこれまでの抑制も、決意も、みんな幻想にすぎなかったのであろうか。僚友に会い、好意という手続によれば、私は何の反省もなく食べている。しかもそれは私が一番自分に禁じていた、動物の肉である。肉はうまかった。(p.167)

위 인용문은 결국 강가에서 빈사 상태에 빠져 정신이 희미해진 다무라가 총구와 시선을 느낀 순간 일본군 동료인 나가마쓰가 나타난 장면이다. 나가마쓰는 물과 고기를 주었고 다무라는 그것을 받아먹는다. 원숭이 고기라고 하며 다무라에게 건넸지만 고기의 정체는 인육이다. 다무라는 21장 「동포」에서 하사의 식인 경험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식인 욕망을 스스로 감지했고 식인을 시도했으며, 결국 인육을 섭취해버리고 만다. 이 단계에서는 다무라에게 있어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가마쓰가 건네준 고기를 받아먹긴 했지만, 그 고기의 정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이, 발이”하고 내가 말했다.

“발? 무슨 발?”

“발이 있어 저기에. 발목이 잘린 것이 나뒹굴고 있어.” 나는 다시금 냄새를 의식했다. 일

찍이 해안 마을에서 말았던,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과 같은 냄새였다. (중략)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짜꿍은 어떻게 됐어?”하고 나는 물었다.

“야스다? 잘 지내. 널 만나면 좋아할 거야.” 어쨌든 야스다의 발목은 아니었다.

“足が、足が”と私はいった。

“足? 何の足だ”

“足がある。あそこに。足首の切ったのが、転がってるんだ”私は改めて臭いを意識した。

かつて海岸の町で嗅いだ、腐った屍体から発する臭いと、同じ臭いであった。(中略)一つの疑いがあった。

“相棒はどうした?”と私は訊いた。

“安田か。達者だ。お前に会ったら、喜ぶだろう”とにかく安田の足首ではなかった。

(pp.168-169)

그렇게 원숭이 고기를 받아먹고 다무라는 일전에 발견했던 ‘발’에 대해서 나가마쓰에게 말한다. 이는 그저 자신이 본 것을 전달하려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에서 나는 냄새가 해안 마을에서 말았던 냄새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해안 마을에서 발견했던 시체는 엉덩이가 사라져 있었으며 다무라는 식인 욕구를 느끼고 그 이유를 추측했다. 이처럼 해안 마을의 시체에서 나는 냄새와 강가 모래밭에 있던 발에서 나는 냄새가 비슷하게 겹쳐지는 모습은, 잘린 발 또한 식인을 위해 누군가가 자른 것이 아닌가라는 다무라의 또 다른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야스다의 안부를 물으며 발의 주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모습은 자신이 먹은 고기가 발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며, 야스다의 인육일 가능성이 있다는 다무라의 의구심으로 볼 수 있다. 다무라가 강가에서 목격했던 ‘발’에 대한 의구심과 ‘냄새의 유사성’에 대한 의구심은 서로 연결되며 원숭이 고기의 정체는 인간임을 점점 다무라에게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다무라는 나가마쓰의 제안으로 야스다와 함께 묵고 있는 텐트로 향하기로 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텐트를 향해 출발하려 할 때의 상황이다.

갑자기 나가마쓰가 웅크렸다. 집어든 것은 총이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내가 이 숲에

서 총구를 봤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나가마쓰가 나타났고, 여기에 총이 있다.-이 연쇄는, 나를 노린 것이 나가마쓰임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그가 그 후에 내게 고기와 물을 주고 내가 걷는 것을 부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모순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가 나가마쓰에게 추궁할 용기는 없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사건의 진행을 원래 대로 되돌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원숭이 고기를 먹은 이래, 모든 걸 되는 대로 내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느끼고 있었다.

不意に永松がかがんだ。拾い上げたのは、銃であった。私は身慄いた。私がこの林に銃口を見たと思い、そこから永松が現われ、ここに銃がある-この連鎖は、私を覘ったのが、永松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ただその後で、彼が私に肉と水を与え、私が歩くのを支えているという事実が矛盾している。しかし私は進んで永松に問い糺す勇氣はなかった。そう訊くことが、事件の進行をもとへ戻すことを懼れたからである。あの猿の肉を食べて以来、すべてなるようにしかないと、私は感じていた。(p.170)

다무라는 나가마쓰가 총을 주워 든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빈사 상태에서 총구와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후 나가마쓰의 등장과 그가 원숭이 고기를 준 뒤 총을 주운 것은 자신에게 시선을 보내고 총구를 겨누는 주체가 나가마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다무라는 모든 요소를 조합하여 추론한다. 다무라는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시선을 보낸 정체가 나가마쓰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추론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가마쓰에게 추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마쓰는 자신이 직접 잡아 말려둔 것이라며 원숭이 고기를 건넸고 다무라는 그것을 받아먹었다. 이는 나가마쓰가 원숭이 고기를 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었고 고기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사냥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나가마쓰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 떠돌고 있던 것이며 그러던 중 다무라를 만난 것이다. 사실 원숭이는 '인간'이었고 나가마쓰는 총을 겨누어 노렸지만 다무라임을 인지하자 발포하지 않았다. 즉 나가마쓰는 '인육'을 얻으려 다무라에게 시선을 보내고 총구를 겨눴지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쏘지 않았다. 시선과 총구를 느낀 상황과 나가마쓰가 총을 주워 든 장면이 겹쳐지며 다무라는 이러한 추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추론이 진실이라면 다무라 자신은 '식인'을 행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이를 두려워한 다무라는 추론의 내용을 나가마쓰에게 묻지 않

있고, 그저 모든 것을 되는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앞선 ‘밭’과 관련된 의구심에다 자신에게 향한 시선과 총구의 주체가 나가마쓰라는 의구심이 더해져 원숭이 고기가 ‘인육’이라는 사실을 다무라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무라는 자신의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모든 것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저 멀리서 ‘탕’하고 소리가 들렸다. “잡았다”하고 야스다가 소리쳤다. 나는 총성이 난 쪽으로 달려갔다. 나무가 드문드문 서있고 강가의 모래밭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나왔다. 사람 형체 하나가 그 양지 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 맨발의 인간이었다. 녹색 군복을 입은 일본군이었다. 그것은 나가마쓰가 아니었다. (중략) 이것이 ‘원숭이’였다. 나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일찍이 내가 절단된 발목을 봤던 강가 모래밭으로 나는 걸기 시작했다. 역새 사이로 악취가 심해졌다. 그리고 나는 한 장소에서 많은 발목을 봤다. 발목뿐만이 아니었다. 그 외 인간의 사지 중에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모든 부분이 잘려 버려져 있었다.

その時遠く、‘パーン’と音がした。“やった”と安田が叫んだ。私は銃声のした方へ駆けて行った。林が疎らに、河原が見渡せるところへ出た。一個の人影がその日向を駆けていた。髪を乱した、裸足の人間であった。緑色の軍服を着た日本兵であった。それは永松ではなかった。(中略)これが‘猿’であった。私はそれを予期していた。かつて私が切断された足首を見た河原へ、私は歩み出した。萱の間で臭気が高くなった。そして私は一つの場所に多くの足首を見た。足首ばかりではなかった。その他人間の肢体の中で、食用の見地から不用な、あらゆる部分が、切って棄てられてあった。(pp183-184)

이후 다무라는 나가마쓰와 함께 텐트에 도착했고, 야스다를 만나게 된다. 위 인용문은 다무라가 합류한 후 식량 확보를 위해 나가마쓰가 원숭이 사냥을 나가고 이내 총성이 울린 장면이다. 다무라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자 나가마쓰는 일본군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으며 다무라는 결국 원숭이의 정체를 깨닫는다. 다무라는 이전까지 그저 의구심만으로 원숭이가 인간이라는 것을 추측했다. 확실한 단서는 없었고 도덕성 추락의 공포로 오히려 진실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다무라는 두 눈으로 원숭이의 실체를 확인했으며 더 이상 진실에게서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다무라가 이 사실들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던 의구심과 추론들과도 연결된다. 이 생각은 다무라가 늘어가는 의구심으로 ‘원숭이는 인간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다무라가 원숭이 고기가 ‘인육’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강가 모래밭으로 걸음을 옮겨 다시 한번 ‘발’들을 확인하고 식인을 위해 잘렸음을 확신한다. 먹을 수 없는 부분만이 버려진 것을 본 순간 ‘발’에 대한 다무라의 의구심은 풀리게 되며, 자신이 ‘식인’을 했음이 확실해진다. 나가마쓰가 건네준 원숭이 고기를 먹고, 이후 ‘인육’임을 인지했지만 완전한 도덕성 추락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무라는 결국 35장 「원숭이(猿)」에서 두 눈으로 원숭이가 인간임을 확인했으며, 시각적으로 포착한 장면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추론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못하는 35장의 장면이 도덕성 추락을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불』에서 가장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는 ‘식인’이다. 다무라의 식인은 21장 「동포」에서 들은 하사의 말로부터 시작된다. 하사로부터 뉴기니아에서의 식인 경험을 듣게 된 다무라의 내면에는 식인의 이미지가 잠재되기 시작했고,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식인 욕망으로 드러났다. 식인을 시도하다 실패한 다무라는 빈사 상태에 빠지고 나가마쓰에게 발견된다. 나가마쓰는 다무라에게 원숭이 고기를 건네고 다무라는 그것을 받아먹는다. 사실 원숭이의 정체는 인간이며 다무라는 ‘식인’을 한 셈이지만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원숭이가 인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가 모래밭에서 발견한 발들, 빈사 상태에서 느꼈던 총구와 시선에 대한 의구심으로 고기가 인육임을 어느 정도 추론했으나 완전히 도덕성이 추락해버린다는 공포에 사실 확인을 회피한다. 하지만 다무라는 나가마쓰가 원숭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내 원숭이의 정체가 인간임을 확실히 인지한다. 또한 강가 모래밭의 발들을 다시 둘러보고 의구심은 풀리게 된다. 다무라는 나가마쓰가 건넨 원숭이 고기를 먹었지만 이것으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후 원숭이 고기가 아니라 인육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았고, 그 추측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원숭이 사냥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발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는 순간 다무라는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진실을 확인한 순간이야말로
도덕성 추락을 완전히 결정짓는 장면이라 해야 할 것이다.

2. 수기에서 드러난 ‘신(神)’

『들불』의 1장에서 36장까지는 다무라가 전장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이다. 특이한 점은 ‘신(神)’의 이미지가 빈번히 등장한다는 것이다. 신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장에서 분석할 예정이지만, 우선 다무라의 수기에서 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주목하여 신의 등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금재는 신에 대해 ‘십자가’, ‘보고 있는 자’, ‘하나님’으로 분류하여 표현의 변화를 고찰하며 구원 받아가는 과정을 분석했지만¹⁶⁾, 신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본장에서는 신의 등장을, 다무라가 신을 원하는 장면과 신의 등장으로 인한 다무라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로 분류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다무라가 신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의식한 시작점은 2장 「길」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무라는 폐결핵으로 부대에서 쫓겨나 병원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홀로 길을 걸다가 신의 존재를 떠올린다. 아래 인용문이 그에 대한 다무라의 생각이다.

나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생의 범람을 보여 준 우연에 감사했다. 지금까지 나의 반생에 조금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실은 나는 혜택받은 운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였다. 그때 나를 찾아온 ‘운명’이라는 단어는, 만일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쉽게 ‘신’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私は死の前にこうして生の氾濫を見せてくれた偶然に感謝した。これまでの私の半生に少しも満足してはいなかったが、実は私は運命に恵まれ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考えが閃いた。その時私を訪れた‘運命’という言葉は、もし私が拒まないならば、容易に‘神’とおき替え得るものであった。(pp.16-17)

다무라는 길을 걸어오며 계속해서 죽음을 예감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코 만족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혜택받은 운명이었다고 상기하고 그 운명이라는

16) 이금재(2000)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 나타난 전쟁과 구원 -〈신〉에 대한 표현변화를 통하여」 『일본어문학(8)』 한국일본어문학회, pp.287-306

단어는 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무라가 자신에게 찾아온 운명을 곧 신의 의도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이 신의 존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에 존재에 대한 다무라의 의식은 죽음의 예감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계속해서 다무라는 죽음의 불안 속에서 전장을 방황하다, 어느 날 산 정상에서 바닷가 근처 숲 위에 빛나는 물체를 발견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다무라가 그것이 십자가임을 알아채고 동요하는 장면이다.

그 형태를 나는 바로 인지했다. 십자가였다. 나는 전율했다. 그 때 고독감에 떨고 있던 내게, 이 종교적 상징의 급작스런 출현은 육체적인 것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다. (중략) 십자가는 나에게 낯선 것은 아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일본의 방방곡곡에는 이미 이 이국의 종교의 상징을 갖고 있었다. 나는 우선 호기심으로 그것에 접근했고, 이어서 그 로맨틱한 교양에 심취했지만, 그 후 내가 쌓은 교양은 어떠한 종교라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나의 청년기는 '방법'에 의해 소년기의 미몽을 배제하는 일에 소비되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것은, 사회에 대해서는 합리적, 자신에 관해서는 쾌락적인 원리였다. (중략) 만일 내가 이 생활원리를 패잔병의 고독한 알몸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새삼스레 소년 시절의 미몽에 마음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멀리 보이는 십자가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정도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략) 내가 인생의 입구에서 신과 같은 불합리한 존재에 빠진 것은 너무도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때는 생활에 입각한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내가 매달릴 수 있을 초월적 존재를 부른 것은, 그 무렵 알게 된 성적 습관을 자신의 의지로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その形を私は即座に認知した。十字架であった。私は戦慄した。その時私のおそれていた孤独にあっては、この宗教的象徴の突然の出現は、肉体的に近い衝撃を与えた。(中略) 十字架は私に馴染のないものではなかった。私が生れた時、日本の津々浦々は既にこの異国の宗教の象徴を持っていた。私はまず好奇心からそれに近づき、次いでそのロマンチックな教義に心酔したが、その後私の積んだ教養はどんな宗教も否定するものであり、私の青年期は'方法'によって、少年期の迷蒙を排除することに費された。その結果私の到達したものは、社会に対しては合理的、自己については快楽的な原理であった。(中略)もし私がこの生活原理を、敗兵の孤独の裡まで持ち続けているとすれば、今更少年時の迷蒙に心を動かされることはないはずであった。遠く見る十字架から眼を離すことが出来ず、こ

れほど思い煩うべきではなかった。(中略)私が人生の入口で神の如き不合理な存在に惹かれたのは、いかにも私が無知であったからではあるが、その時は生活に即した一つの理由があったのを思い出した。私がすぎるべき超越的実在者を呼んだのは、その頃知った性的習慣を、自己の意志によっては、抑制出来なかったからである。(pp.67-68)

십자가는 다무라가 유년기부터 자주 접해왔던 익숙한 종교적 상징물이었다. 다무라는 호기심으로 기독교에 접근하여 심취하기도 했지만, 이후 쌓은 교양은 모두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신앙적인 상념들을 ‘미몽(迷蒙)’으로 치부하게 된다. 이후 다무라는 사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생활 원리를, 자신에 대해서는 쾌락적인 생활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전장에 홀로 남겨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인 다무라는 소년기의 생각들이 과연 정말 미몽에 불과한지에 대해 고심하며 신을 믿었던 이유를 찾아내려한다. 다무라 본인이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믿은 계기와 이유는 성적(性的) 습관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감정에 대해 떠올린다.

이와 같이 다무라가 패잔병이 된 고독 앞에서, 그 생활 원리를 상대화하고 동시에 그 진실성에 의문을 던졌으며 생활 원리를 의문시하는 모습에 대해 이시준은 소년 시절의 기독교적 신앙이 결코 ‘미몽’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또한 작가는 회의와 철학적 고민을 통하여 주인공의 신속한 신앙으로의 회귀를 그리려 하지는 않았고, 주인공이 기독교에 입신한 계기는 소년 시절의 성에 대한 죄책감이며, 주인공은 당시 소년 시절에 느낀 죄책감이 맞는지, 그 감정을 부정한 이후의 청년기의 생활원리가 맞는지를 마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⁷⁾ 이처럼 다무라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 원리를 의문시하고 종교적 상념들을 떠올리며 신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국의 종교적 형상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떨고 있는 다무라에게 내면적 동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빛을 발하는 물체의 정체를 확인한 후의 망설임 속에서 십자가의 형태와 색채가 더욱 또렷해져 다가왔으며 다무라 내면의 종교적 이미지는 되살아났다. 빛나는 형상, 즉 십자가는 전쟁이라는 어둡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진 다무라 안에 내

17) 이시준(2009)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 나타난 신-국가, 집단과 개인과의 거리를 매개로」 『문학과 종교』(14(3)) 한국문학과종교학회, p.176

재되어 있던 신앙적 상념을 일깨웠고, 이는 다무라의 내면에 신이 본격적으로 개입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발견한 날 다무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 속에서 교회를 발견한다. 그곳에서 거행되고 있는 장례 미사에서 다무라는 본인의 이름이 쓰여진 관을 발견하고 그 장례 대상이 본인인 것을 알아차린다. 아래 인용문은 다무라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다.

제단 앞에 하나의 관이 검은 천에 덮혀 놓여 있었다. 로마자로 죽은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 자신의 이름이었다. (중략) 나는 관 뚜껑을 열고 나 자신의 죽은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거울이나 사진으로 낯익은 얼굴보다 야위어 볼이 패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에서 본 서구의 순교자와 닮았다. (중략) 합장을 한 채 죽었기 때문에 성자로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불안한 상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과연 이토록 추앙받을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의 영혼은 그 정도로 경건했던 것일까. (중략) “데 프로폰디스”하고 갑자기 그 입술이 말했다.

祭壇の前に一つの寝棺が、黒布に蔽われておかれてあった。ローマ字で死者の名が記されてあった。私自身の名前であった。(中略)私は棺の蓋を取り、私自身の死顔に眺め入った。それは鏡や写真で見馴れた顔より、痩せて頬が落ちていた。そして幾分絵で見た西欧の殉教者に似ていた。(中略)合掌して死んだため聖者として崇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不安の念が私を捕えた。私は果してこれほど崇められるに価するであろうか。私の魂はそれほど敬虔であったろうか。(中略)“デ・プロフンディス”と突然その唇がいった。(pp.72-73)

다무라는 관 안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서구의 순교자와 성자를 떠올리지만 이내 본인의 영혼은 과연 그만큼 경건한 것인가 불안감과 의구심을 느낀다. 그리고는 관 속 자신의 입에서 ‘데 프로폰디스(De profundis)’¹⁸⁾라는 구절을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교회가 소란스러워지자 꿈에서 깨어난다. 이는 십자가의 발견으로 인해 다무라에게 깨어난 신앙적 상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다. 다무라가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에서 순교자와 성자라는 존재, 즉 성스러운 신앙적

18) ‘제가 깊은 구렁에서’ - 가톨릭 구약성서 시편 130장의 첫마디.

존재를 발견한 것은, 자신이 타락하지 않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무라는 자신의 영혼을 의심하며 “데 프로퐁디스 클라마비(De profundis clamavi)”(p.73)¹⁹⁾라는 구절을 읊는다. 이 구절이 적혀있는 시편은 죄의 비애에서 구원해 주도록 도움을 호소하며, 그 구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표현된 것이다. 다무라는 자신이 아직 수렁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과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이러한 감정 속에서 눈을 뜬 것은 다무라 자신의 어지러운 내면과 신앙적 상념이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혼자서 깊은 수렁에서 죽는 건 재미없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저 회당에 들어가 생애의 마지막에 나를 찾아온 하나의 의문을 풀어야만 한다. 만일 이것이 하나의 계시라면, 만일 내가 성자라면, 나는 무릎 꿇을 것이다.

私は了解した。こうしてひとり深き淵に死ぬのはつまらない。殺されるまでも、あの会堂に入って、生涯の最後の時に私を訪れた、一つの疑問を晴らさねばならぬ。もしこれが一つの啓示であるならば、もし私が聖者であるならば、私は跪くであろう。(pp.73-74)

위 인용문과 같이 다무라는 꿈에서 깨어나고 아직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이 구원받을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향한다.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종교적 신앙, 즉 ‘신’의 이미지가 침투하며 다무라의 내면과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 꿈속에서 느낀 감정은 다무라가 다음 행선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신이 다무라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에도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무라는 교회가 있는 마을로 내려오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들개와 일본군의 시체만이 남아 있었다. 교회로 들어가지만 다무라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피와 시체의 이미지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감정을 느낀다. 아래 인용문은 다무라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19) ‘제가 깊은 구렁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가톨릭 구약성서 시편 130장.

먼지 쌓인 바닥에 엎드려 나는 울었다. 십자가에 이끌려 내려온 경건한 내가, 왜 그저 동포의 처참한 사체와 서툰 종교 화가가 그린 예수의 형사체만을 봐야하는 것인가. 나를 이곳으로 이끈 운명이 잘못된건지, 나의 마음이 잘못된건지, 그 중 하나이다. “데 프로퐁디스” 어젯밤 꿈에 내 자신의 입으로부터 들렸던 말이 울려 퍼졌다. (중략) 그것은 흥분했을 때의 내 자신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만약 지금의 내가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이때부터이다. (중략) 소년 시절 암송하던 구약의 시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교회의 천장을 따라 이동하는 나의 눈에 들어오는 필리핀의 초라한 교회 내부에는, 아무것도 내 목소리에 대답하는 것은 없었다.

床の埃に伏して私は泣いた。十字架に曳かれて降りて来た敬虔なる私が、何故ただ同胞の惨死体と、下手な宗教画家の描いたイエスの刑死体だけを見なければならぬのか。私をここに導いた運命が誤っているか、私の心が誤っているか、そのいずれかである。“デ・プロ퐁디스” 昨夜夢で私自身の口から聞いた言葉が響き渡った。(中略)それは昂奮した時の私自身の声だったのである。もし現在私が狂っているとすれば、それはこの時からである。(中略)少年の時暗誦した旧約の詩句が頭の中で翻った。しかし会堂の天井に添って移行する私の眼に映る、比島の見すばらしい会堂の内部には、何も私の呼声に答えるものはなかった。(pp.92-93)

동료의 시체와 서툰 종교 화가가 그린 예수 형사체(刑死体)만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무라는 지난밤의 꿈속과 같이 “데 프로퐁디스 클라마비(De profundis clamavi)”라는 말을 듣지만 이내 환청임을 깨닫는다. 다무라는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해 줄 존재를 찾는 것에 실패하자 결국 구원을 단념한 후 교회를 나온다. 다무라는 자신의 생애 및 운명에 대한 의문과, 구원에 대한 의구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다무라는 십자가를 향해 내려왔지만 그에 응답하는 목소리는 없었던 것이다. 구원의 목소리의 부재로 인해 다무라는 신앙적 상념을 포기하고 결국 교회 밖으로 나왔으며, 이때 다무라의 내면과 신의 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무라는 유년기부터 이국의 종교, 즉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리핀에서 발견한 십자가는 다무라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신앙적 상념을 일깨웠고 그를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죽음을 각오한 이동은 곧 구원을 향한 다무라의 물음이었으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도 같았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내면에 신을 연

결사키고 싶은 다무라의 욕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도달한 교회에서도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는 목소리가 없었기에 결국 다무라는 신을 원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다무라의 행동에 신이 개입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는 어떻게 다무라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까?

1장에서 언급했듯이 29장 「손(手)」에서는 미쳐버린 빈사 상태의 일본군 장교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죽은 뒤 다무라는 식인 총동에 휩싸인다. 사망 직전의 장교에게서 ‘먹어도 좋다’는 말을 들은 다무라는 시체를 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을 떠올린다. 단절된 것 같았던 신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금 등장한 것이다. 의식이 사라지면 인간이 아닌 그저 평소에 섭취하는 동물이나 식물과 다를 없을 것이라는, 인육 섭취의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 불어 넣고 칼을 뽑자 다무라의 왼손은 칼을 든 오른손을 붙잡아 저지한다. “오른 손목을 위에서부터 붙잡은, 그 살아 있는 왼손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이 생각”(p.156)되었다.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²⁰⁾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딱히 놀라지 않았다. 보고 있는 자가 있는 이상, 목소리 정도가 들려도 이상하진 않다. 목소리는 내가 죽인 여자나, 짐승의 소리는 아니었다. 마을의 교회에서 나를 불렀던, 저 높고 거대한 목소리였다. ‘일어나거라. 자, 일어나거라...’하고 노래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일어났다. 이때 처음으로 나는 타자에 의해 움직였다.

“汝の右手のなすことを、左手をして知らしむる勿れ” 声が聞えたのに、私は別に驚かなかった。見ている者がある以上、声ぐらい聞えても、不思議はない。声は私が殺した女の、獣の声ではなかった。村の会堂で私を呼んだ、あの上ずった巨大な声であった。“起てよ、いざ起て...”と声は歌った。私は立ち上った。これが私が他者により、動かされ出した初めである。(p.157)

그때 성경의 구절이 다무라의 귀에 들어왔고 다무라는 행동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무라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거스르는 고뇌의 순간에 빠지자 18장 「데 프로퐁디스(デ・プロフォンディス)」 이후 다시 한번 성경의 구절이 등장한다. 그 구절은 다무라가 보였던 왼손이 오른손을 붙잡은 행동과 겹치지며 신체 좌우의

20) 마태복음 6장 3절.

자아 및 사고가 나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일어나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다무라는 이에 응한다. 선명한 타자의 목소리에 움직이는 다무라의 모습은 다시 그의 내면과 신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무라의 오른손은 굽주림에 못 이겨 식인을 시도하려는 욕망을, 왼손은 이를 저지하는 신을 나타낸 것이다. 좌우가 분열됐기에 다무라는 식인을 멈출 수 있었고 도덕성의 완전한 추락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로써 다시금 신이 다무라의 내면에 개입하게 되고 신체 좌우의 분열은 이후의 장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식인을 포기하고 들판을 향해 내려간 다무라는 골짜기에서 꽃을 한 송이 발견하게 된다. 아래 인용문은 그 꽃에게서 “저를 먹어도 좋아요”(p.160)라는 목소리를 들은 다무라의 생각이다.

나는 굽주림을 의식했다. 그때 다시 내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움직였다. 손만이 아니고 우반신과 좌반신 전체가 별개의 것처럼 느껴졌다. 굽주리고 있는 것은 분명 내 오른손을 포함한 우반신이였다. 내 좌반신은 이해했다. 나는 지금까지 반성 없이 풀이나 나무나 동물을 먹었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죽은 인간보다도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였다. 살아 있기 때문이다. (중략) “들의 백합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라, 고생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화로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신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아아, 믿음이 약한 자여.” 목소리는 그 꽃 위에 깔때기 모양으로 선, 꽃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으로부터 들려오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이였다”

私は飢えを意識した。その時再び私の右手と左手が別々に動いた。手だけでなく、右半身と左半身の全体が、別もののように感じられた。飢えているのは、たしかに私の右手を含む右半身であった。私の左半身は理解した。私はこれまで反省なく、草や木や動物を食べていたが、それ等は実は、死んだ人間よりも、食べてはいけなかったのである。生きているからである。(中略) “野の百合は如何にして、育つかを思え、勞せず紡がざるなり。今日ありて明日焔に投げ入れらるる野の草をも、神はかく装い給えば、まして汝をや、ああ信仰うすき者よ” 声はその花の上に漏斗状に立った、花に満たされた空間から来ると思われた。ではこれが神であった。(pp.160-161)

다무라가 굽주림을 의식하자 신체는 좌우로 분열되고, 살아있는 대상을 섭취해서

는 안 된다고 느끼며, 들려온 목소리는 신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신체 좌우의 분열과 들려온 목소리는 신이 다무라의 신체에 개입하여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9장 「손」에서와 같이 다무라의 신체의 좌측이 살아있는 대상을 섭취하는 것에 반항을 보였으며, 반대로 우측은 배고픔을 느낀다. 다무라에게 신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다무라는 꽃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좌반신에 신이 개입되면서 다무라는 꽃을 먹지 않았고 생명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좌우 분열에 이어 다무라에게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생명의 존엄을 강조한다. 이처럼 좌우 분열과 목소리라는 형태로 개입되어 신은 다무라에게 도덕을 제시했으며 그 때문에 다무라는 생명의 섭취를 피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굶주림을 느낀 상황에서 또다시 신이 개입하여 영향을 주면서 다무라의 내면과 신체는 욕망과 도덕이 대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무라는 배고픔을 느끼고 골짜기를 빠져나와 장교의 시체가 있는 곳을 향해 거슬러 올라간다.

적갈색으로 부풀어오른 사지에, 연두색 무늬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고, 피부는 여기저기 파열되어 더러운 연두색의 실질(實質)을 드러내고 있었다. 복부는 혁대를 경계로, 두 개의 공처럼 솟아 있었다. 그는 먹을 수 없었다. 신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를 바꾼 것이다. 그는 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나 또한....

赤褐色にふくれ上った四肢に、淡緑の文様が刺青のように走り、皮膚は処々破裂して、汚緑色の實質を現わしていた。腹部は帯革を境いに、二つの球に聳えていた。彼は食えなかった。神が私がここへ来る前に、彼を変えたのである。彼は神に愛されていた。そして恐らくは私もまた…… (pp.162-163)

위 인용문은 다무라가 장교의 모습을 다시 발견한 장면이다. 장교의 시체는 부패되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다무라는 신이 그와 자신을 사랑했기에 모습을 바꿔 놓았다고 생각한다. 장교의 시체를 향한 1차 식인 시도는 다무라의 좌우 분열 때문에 실패했고 이는 다무라를 다시금 들판으로 가게 만들었다. 다무라는 배고픔에 다시 돌아오지만 그 사이에 시신은 먹기 힘든 상태가 됐으므로 2차 식인 시도 또한 저지된다. 즉 다무라의 몸에 신이 개입함으로써 결국 식인 시도를

막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굶주림을 느낄 때마다 좌우 분열이라는 방식으로 신은 다무라에게 개입하여 식인을 저지했으며, 이 때문에 다무라는 완전한 도덕적 추락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신의 존재는 다무라의 의식에 깊이 자리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신의 의지는 좌반신에 깃들어 다무라의 식인을 저지했고, 목소리의 형태로는 다무라에게 생명에 대한 도덕을 제시했다. 그 결과 다무라가 결국 탈진한 상태로 나가마쓰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무라가 완전한 도덕적 추락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3.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 욕구

『들불』에 앞서 발표된 오오카의 『포로기』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미군 병사를 쏘지 않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자기분석의 과정에서 휴머니즘과 부성애를 제시한다. 『들불』의 다무라의 경우 나가마쓰의 원숭이 사냥을 목격하고 고기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의 도덕성은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후 다무라에게는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처음에는 다무라는 나가마쓰에게서 건네받아 먹은 원숭이 고기의 정체를 몰랐지만, 이내 원숭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고기가 인육인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나가마쓰는 동료인 야스다마저 죽이려고 총을 겨눈다. 아래 인용문은 야스다를 쏘고 나서 식인을 행하려는 나가마쓰의 모습을 본 다무라의 생각이다.

두려운 것은, 이것들 모두 세세한 것들을 내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따뜻한 연분홍색의 고기를 앞에 두고, 나는 단지 토하고만 있었다. 빈 위에서 노란 액체만이 나왔다. 만일 이때, 신이 내 몸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라면, 신에게 영광 있으리라. 나는 분노를 느꼈다. 만일 인간이 그 굶주림 끝에, 서로 잡아먹는 것이 필연이라면, 이 세상은 신이 분노한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이때, 내가 토하고 분노할 수가 있다면,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천사이다. 나는 신의 분노를 대항해야만 했다. 나는 일어서서 자연을 초월한 힘에 이끌려 숲 속을 달렸다. 샘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까지 나가마쓰는 야스다를 쏜 총을 집으러 갔다. (중략) 나가마쓰는 빨간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내가 돌린 총구를 잡았다. 하지만 늦었다. 이때 내가 그를 쏘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없다. 그러나 고기는 확실히 먹지 않았다. 먹었다면 기억하고 있을 터이다.

怖しいのは、すべてこれ等の細目を、私が予期していたことであった。まだあたたかい桜色の肉を前に、私はただ吐いていた。空の胃から黄色い液だけが出た。もしこの時既に、神が私の体を変えていたのであれば、神に栄えあれ。私は怒りを感じた。もし人間がその飢えの果てに、互いに食い合うのが必然であるならば、この世は神の怒りの跡にすぎない。そしてもし、この時、私が吐き怒ることが出来るとすれば、私はもう人間ではない。天使である。私は神の怒りを代行しなければならぬ。私は立ち上り、自然を超えた力に導かれて、林の中を駈けて行った。泉を見下す高みまで、永松が安田を撃った銃を、取りに

行った。(中略) 永松は赤い口を開けて笑いながら、私の差し向けた銃口を握った。しかし遅かった。この時私が彼を撃ったかどうか、記憶が欠けている。しかし肉はたしかに食べなかった。食べたなら、憶えているはずである。(pp.190-191)

다무라는 식인을 시도하려는 나가마쓰의 모습을 보고 구토감을 느끼며 자신이 “신의 분노를 대항”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가마쓰에게 총구를 겨누었으나 발포의 진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 다무라의 기억도 중단된다. 원숭이 사냥을 목격한 이후 다무라에게는 추락해버린 도덕성을 회복할 계기가 없었지만, 나가마쓰의 행동으로 인해 다시 인육 문제와 마주하며 도덕성 회복의 계기와 욕구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다무라가 시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전까지는 ‘길가에 있던 죽은 동료들’, ‘장교의 몸’, ‘들판의 꽃’을 보면서 식욕을 느꼈지만 위에서 인용한 장면에서는 구토감을 느낀다. 앞서 배고픔으로 인해 도덕성을 상실했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도덕성이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다무라는 “끓주림 끝에, 서로 잡아먹”으려는 나가마쓰의 행위에 분노와 구토감을 느끼는 자신을 천사로 여기며 신의 분노를 대항하고자 했다. 이후 다무라가 나가마쓰를 향해 발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육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원숭이 고기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다무라가 도덕성의 회복을 갈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인육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함으로써 그의 도덕성은 완전히 추락했기 때문에 다무라는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 것이다. 다무라는 일시적으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지만 식인은 결코 자의가 아닌 타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식인이라는 행위를 혐오하는 도덕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되는 시체를 바라보는 다무라의 시각의 변화, 식인 행위에 대한 분노 표출, 식인의 부정은 그의 도덕성 회복의 욕구가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후 다무라는 미군의 포로가 된다.

포로병원에 수용되었을 당시, 나는 주어진 밥상을 향해 일종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같

은 병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를 미치광이로 간주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언가 나 이외의 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자신의 육체를 보양 할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는 해도, 모두 유기질로 이루어진 음식을 먹는 것을, 그 유기질 이전의 소유자였던 생물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오히려 조금의 자책도 없이 이것을 행하는 인간들이 이상할 따름이다. 인간끼리의 사랑과 관대, 즉 휴머니즘에 대해 저토록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이 말이다.

俘虜病院に収容された当初、私は与えられる食膳に対し、一種の儀式を行うことで、同室者の注意を惹いたそうである。人々は私を狂人と見做した。しかし私は、今でもそうだが、自分のせずにいられぬことをするのを、恥じないことにしている。何か私以外の力に動かされるのだから、止むを得ないのである。私はいかに自分の肉体を養う要請に出ずるとはいえ、すべて有機質から成り立っている食物を食べることを、その有機質の以前の所有者であった生物達に、まず詫びるのである。私としては、むしろ少しも自責なくこれを行っている、人間共が不思議でならない。人間同士の愛と寛大、つまりヒューマニズムについて、あれほど大言放語している彼等がである。(pp.192-193)

위 인용문은 다무라가 포로병원으로 보내졌을 때 보인 행동과 생각이다. 다무라는 주어진 밥상을 앞에 두고 “일종의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눈앞의 음식물이 밥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모두 생명체였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부분은 2장에서 살펴본 다무라가 꽃을 보며 식욕을 느낀 장면과 겹쳐진다. 다무라는 장교의 시체를 먹으려다 실패하고 내려간 골짜기에서 발견한 꽃을 보며 식욕을 느꼈지만, 다무라의 신체 분열과 들려온 목소리의 형태로 ‘살아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을 다무라에게 제시했다. 이것이 포로병원에서 다무라가 밥상을 앞에 두고 보인 행동과 겹쳐지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드러난 도덕은 식사로 차려진 음식이라 해도 그 이전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한다는 인식이다. 다무라는 결국 영양 섭취를 목적으로 식인을 행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생명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나가마쓰의 원숭이 사냥을 목격하며 다무라는 생명의 훼손을 확실히 인지했다. 이에 다무라는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밥상에 대한 의식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무라가 보인 포로병원에서의 행동은 그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타자

의 목격담이 전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이전에 ‘살아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무라의 도덕적 의식이 무의식중에 나타난 것으로, 다무라의 내면에 깃든 도덕성 회복의 욕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무라는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게 된다. 아래 인용문은 병원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다무라가 느낀 감정이다.

이 시골에도 아침저녁으로 배달되어 오는 신문 보도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 즉 전쟁을 시키려는 것 같다. 현대의 전쟁을 조종하는 소수의 신사분들은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에게 속고 싶어하는 듯한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아마 그들은 내가 필리핀의 산속에서 만났던 것 같은 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통감할 것이다. 전쟁을 모르는 인간은, 절반은 아이들이다.

この田舎にも朝夕配られて来る新聞紙の報道は、私の最も欲しないこと、つまり戦争をさせようとしているらしい。現代の戦争を操る少数の紳士諸君は、それが利益なのだから別として、再び彼等に欺されたらしい人達を私は理解出来ない。恐らく彼等は私が比島の山中で遇ったような目に遇うほかはあるまい。その時彼等は思い知るであろう。戦争を知らない人間は、半分は子供である。(p.195)

전쟁으로 내모는 듯한 신문 보도를 보고 다무라는 거부감을 느낀다. 이득을 얻으려 전쟁을 부추기는 무리를 ‘소수의 신사분들’이라고 비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또한 비판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 다무라는 징집되어 필리핀으로 보내졌지만, 폐결핵으로 부대와 병원에서도 버려지고 홀로 전장을 방황하다 결국 식인을 저지르게 되며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기에 이른 인물이다. 그의 도덕성은 인육 문제로 추락하지만, 그 계기와 원인, 시작은 전쟁이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쟁 참여는 다무라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자에 의한 것이다. 이에 다무라는 자신의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쟁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극한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비난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죄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다무라는 자신이 망각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 회상을 거듭하고 결국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떠올리게 된다. 아래 인용문은 환상 속에서 다무라가 자신이 죽인 필리핀 여성과 나가마쓰를 발견한 장면이다.

생각났다. 그들이 웃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이기는 했지만 먹지는 않았다. 죽인 것은 전쟁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나 이외의 힘의 결과이지만, 확실히 내 의지로는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 죽은 자의 나라에서 검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을 든 타락한 천사였던 전생의 나는, 인간들을 응징할 작정으로, 실은 그들을 먹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들불을 보면 반드시 그곳에 인간을 찾으러 갔던 나의 비밀스러운 소망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思い出した。彼等が笑っているのは、私が彼等を食べなかったからである。殺しはしたけれど、食べなかった。殺したのは、戦争とか神とか偶然とか、私以外の力の結果であるが、たしかに私の意志では食べなかった。だから私はこうして彼等と共に、この死者の国で、黒い太陽を見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しかし銃を持った墮天使であった前の世の私は、人間共を懲すつもりで、実は彼等を食べたかったのかも知れなかった。野火を見れば、必ずそこに人間を探しに行った私の秘密の願望は、そこにあったかも知れなかった。
(pp.208-209)

자신이 죽인 두 사람을 발견한 다무라는 그들이 웃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가 그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마쓰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에서 인육은 결코 먹지 않았다고 말한 이후 다시금 자신의 식인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무라는 수기에 이어 환상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웃음을 근거로 식인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무라의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도덕성 회복의 욕구가 환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식욕은 인간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일어난 욕구라는 다무라의 추측은, 극심한 굶주림에 결국 시체를 보고 식욕을 느끼며 추락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무라는 원숭이 고기의 정체가 인육인 것을 확인하여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자 이를 회복하려는 욕구를 보였다. 시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했고 식인 행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자신은 식인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다. 포로가 된 이후에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죄책감과 도덕을 드러냈으며 전쟁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 다무라는 환상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식인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시체를 보며 느낀 식욕은 인간에 대한 응징을 위한 반응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다무라가 자신의 완전히 추락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요구되는 ‘신(神)’

다무라가 쓴 수기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수기는 다무라가 귀국 후 기억의 일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며 다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다무라의 광기가 수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8장 「다시 들불로(再び野火に)」에서 다무라는 수기가 의사의 권유로 쓰여진 것이며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다무라와 수기를 읽은 의사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대단히 잘 썼습니다. 마치 소설 같네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썼습니다”

“하하하,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라고 믿고 있는 곳에 진실을 수정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소설가에게도 공통된 심리입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정리와 합리화가 동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꽤나 잘 의식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당신은 지어내고 계신 겁니다” (중략)

“저희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당신이 보았던 신의 영상입니다. 보통 저희들은 이것을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 나타나는 콤플렉스-메시아 콤플렉스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지금도 자신이 천사라고 믿고 계십니까? (중략)

“당신의 증상은 이인증(離人症)이라고합니다만, 부차적 특징의 하나로서, 타인을 신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大変よく書けています。まるで小説みたいです”

“僕はありのままを書いたつもりです”

“ははは、そうです。そこです。あなたがありのままと信じているところに、眞実を修正する作用が働いているのが特徴でして、これは小説家にも共通した心理なのです”

“想起に整理と合理化が伴うのは止むを得ません”

“なかなかよく意識しておられる。しかしあなたは作っておられますよ”(中略)

“私共に一番興味があるのは、あなたの神の映像ですね。普通私共はこれを罪悪感を補償するために現われるコンプレックス-メシヤ・コンプレックスと呼んでいるんですが、あなたは

今でも自分が天使だと信じていられますか”(中略)

“あなたの症状は離人症というんですが、副次的特徴の一つとして、他人を信用しないことです。つまり自分が信用出来ないからなんで”(pp.199-201)

의사는 다무라의 수기를 소설 같다고 느낀다. 즉 허구의 세계이고 진실이 수정됐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다무라가 적은 신의 영상은 그저 메시아 콤플렉스²¹⁾에 지나지 않으며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다무라를 이인증²²⁾ 환자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다무라는 전장에서의 경험으로 광기에 휩싸였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는 것이 의사의 의견이며, 정상 상태인 의사의 시선은 독자들에게 수기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물론 역으로 『들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무라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기 때문에 수기의 내용은 진실이고 의사가 다무라를 미치광이로 대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다무라의 광기가 수기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 진위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 결국 수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쓰여진 것이며 타자의 개입은 없는 것이 특징이기에 필리핀 전장에서 정말 신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 다무라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은 어렵다.

만약 내가 나의 오만으로 인해 죄에 빠지려 했던 바로 그때, 저 알 수 없는 습격자에 의해 나의 후두부가 맞은 것이라면— 만약 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미리 그 타격을 준비하신 것이라면— 만약 때린 것이, 저 석양이 보이는 언덕에서, 굶주린 나에게 자신의 살을 권한 거인이라면—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변신이라면— 만약 그가 진정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필리핀의 산야에까지 보내진 것이라면— 신에게 영광 있으리라.

もし私が私の傲慢によって、罪に墮ちようとした丁度その時、あの不明の襲撃者によって、私の後頭部が打たれたのであるならば— もし神が私を愛したため、予めその打撃を用意し給うたならば— もし打ったのが、あの夕陽の見える丘で、飢えた私に自分の肉を薦めた巨人であるならば— もし、彼がキリストの変身であるならば— もし彼が真に、私一人の

21) 본인이 순교자, 메시아(구세주)라고 믿는 현상.

22) 자기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기로부터 분리, 소외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데에 이상이 생긴 상태.

ために、この比島の山野まで遣わされたのであるならば― 神に栄えあれ。(p.209)

다무라는 망각한 기억을 회상하다 떠올린 환상 속에서 자신의 후두부를 때린 정체에 대해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다무라의 ‘만약’이라는 가정 표현은 수기의 진위를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만약’이라는 표현은 수기의 후반부에서 다무라가 신의 분노를 대항하고자 나가마쓰를 향해 총을 겨눴을 때 사용되었다. 이에 신지숙은 수기를 쓰는 것은 현재이고 수기 속 내용은 과거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가정의 표현은 다무라의 당시의 행동을 추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하며 스스로 자신의 해석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약’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자들은 다무라의 서술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망각한 기억을 찾으려 영상을 떠올렸지만, 다무라는 ‘만약’을 연발하여 결국 진실은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며, 의사의 의심에 이어 다무라의 ‘만약’이라는 가정의 표현 또한 수기 속 신의 존재 진위를 불명확하게 한다.

수기의 내용 외에도 신의 존재는 귀환 후 다무라의 사고에도 드러난다. 아래의 인용문은 다무라가 수기 작성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망각된 영상을 되찾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무라의 신에 대한 사고이다.

필리핀 여자를 죽인 후, 내가 그 죄의 원인라고 생각한 흥기를 버린 이래, 내가 자신해서 총을 잡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식인종 나가마쓰를 죽였을 때, 아직 내가 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면, 나는 그 망각의 기간, 총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신의 분노를 대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우리들이 믿어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이다.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의 문제다.

比島の女を殺した後、私はその罪の原因と考えた兇器を棄てて以来、私が進んで銃を把ったのは、その時が始めてであった。そして人食い人種永松を殺した後、なお私が銃を棄てていなかったところを見ると、私はその忘却の期間、それを持ち続けていたと見做すこと

23) 신지숙(2007)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들불(野火)』론 - 가능성으로서의 신」 『일본학연구』(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127

が出来る。私は依然として神の怒りを代行しようと思っていたのであろうか。いや、神は何者でもない。神は我々が信じてやらなければ存在し得ないほど弱い存在である。私がそう錯覚していたかどうかの問題だ。(p.202)

다무라는 환상 속에서 필리핀 여자를 죽이고 총을 버린 이후, 다시금 총을 손에 쥐게 된 장면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무라는 자신이 정말 “신의 분노를 대행”하려 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며 신의 존재를 의심한다. 이는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나가마쓰가 식인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며 다무라가 구토감을 느끼고 “신의 분노를 대행”하려 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무라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정말 신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동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들불을 향해, 저 필리핀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모두 이 신을 향해 세로로 늘어선 지구 위를, 가로로 기어 신을 괴롭히고 있는 인간들을 응징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천사라면, 어째서 나는 이렇게 슬픈 것일까. 이미 지상의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나의 마음이, 어째서 이렇게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뭔가 잘못이 없으면 좋겠다만.

野火へ向い、あの比島人がいるところへ行きつつある。すべてこの神に向い縦に並んだ地球の上を、横に匍って、神を苦しめている人間共を、懲しめに行くのだ。しかしもし私が天使なら、何故私はこう悲しいのであろう。もはや地上の何者にも縛られないはずの私の中が、何故こう不安と恐怖に充た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何か間違いがなければよいが。(p.206)

이어진 환상에서도 다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 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응징을 위해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자신을 “신의 분노를 대행”하는 천사로 여겼음에도 슬픈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다무라는 자신의 내면이 동요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수기 작성을 완료한 이후 망각된 기억을 되찾으며 다무라에게 있어 신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그러나 환상의 끝에서 다무라는 자신의 식인 행위를 부정하고 ‘만

약'이라는 가정의 표현을 사용하며 신의 존재를 소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무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이 죽인 필리핀 여성과 나가마쓰의 미소를 보고 자의에 의한 식인 행위를 부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인섭과 우연희는 자기변호를 위한 서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무라의 의식과 서술을 분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²⁴⁾ 다무라는 결국 환상 속에서 내면에 있던 도덕성 회복의 욕구를 드러내며 신의 존재를 다시 떠올린 것이다. 다무라의 의구심으로 신의 존재가 희미해 진다면 다무라가 수기 속에서 언급한 신도 부정되는 것이고, 이는 자기변호 방법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다무라는 진위가 불명확하더라도 '만약'이라는 가정의 표현을 사용해서 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기 속 내용의 진위가 의심되고 신의 존재가 흔들린 상황 속에서도 다무라가 수기와 자신의 사고에서 신의 존재를 표출한 것은 도덕성 회복의 욕구라는 이유에서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무라는 원숭이 고기를 먹고 그것이 인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자신이 식인을 행했다는 것을 인지하며 다무라의 도덕성은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다무라는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가지며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욕구를 보였다. 귀환 후, 의사의 권유로 작성한 수기는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의 욕구가 잠재된 상태에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무라는 수기 속에서 인육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죄의식을 해소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을 것이다.

다무라가 죽은 장교의 시체를 도려내려 했을 때 신이 다무라의 몸에 개입하며 식인은 저지된다. 또한 신의 존재는 다무라에게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을 말하고 다무라가 나가마쓰의 식인 행위를 목격하자 대신 분노하게 한다. 이러한 수기 속 신의 존재는 다무라가 인육 문제에 대해 고뇌하게 만들고 생명은 존엄하다는 도덕을 제시하며, 그 진위와 관계없이 다무라의 도덕성을 회복시킨다고 할 수 있다.

수기 속에서 신이 다무라의 몸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식인 시도에 대해 고뇌했으며 인육을 먹었지만 자의가 아니었고, 식인 행위를 목격하자

24) 우연희, 신인섭(2021) 「오오카 쇼헤이의 『들불(野火)』 다시 읽기 -병사의 이동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88) 한국일본어문학회, p.304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다무라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다. 만약 수기에서 신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거나 이후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린다면,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 방법은 사라져 버리기에 다무라는 그저 식인을 행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한 존재로 남아버린다. 즉 다무라는 굶주림에 휩싸여 인육을 섭취한 인간이 아닌 도덕적인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었기에 신을 수기 속에 드러내어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Ⅲ. 결론

오오카 쇼헤이는 일본 전후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쓴 『들불』은 전후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설 속에서 대두된 신의 존재와 인육 문제를 통해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실존 문제를 묻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들불』에 관한 연구는 작품의 구조, 인육 문제, 신과 구원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다무라가 그의 수기에서 신의 존재를 언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기 속 신의 존재를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의 욕구로 해석했다.

제1장에서는 『들불』에서 나타난 다무라의 도덕성 추락 행위 중 식인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무라는 전장을 방황하다 일본군과 마주쳤고 부대의 하사로부터 식인 경험을 들으면서 다무라의 내면에는 인육 문제가 부상된다. 이후 다시 혼자가 된 다무라는 극도의 굶주림을 겪게 되고 기아 상태는 다무라에게 식인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내재된 인육 문제는 다무라가 시체를 보고 식욕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본격적인 도덕성 추락의 단계에 이르게 했다. 배고픔 끝에 다무라는 식인을 시도하지만 왼손이 칼을 든 오른손을 움켜쥐며 저지된다. 다무라는 빈사 상태가 되고 나가마쓰에게 원숭이 고기를 받아먹으며 식인을 행하게 되지만, 고기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도덕성의 완전한 추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무라는 고기가 인육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품어왔고 추론 또한 시도했지만, 그것이 진실일 경우 자신의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해버릴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사실 확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다무라는 나가마쓰의 원숭이 사냥을 목격하게 되고 그동안 피해 왔던 고기의 정체가 인육이라는 진실과 마주하며 도덕성은 완전히 추락하고 만다. 하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다무라의 인육 문제는 식인 욕망과 시도로 이어졌고 인육 섭취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원숭이 고기를 섭취한 것은 자의가 아닌 타자에 의한 식인이었고 인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완전한 도덕적 추락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다. 이후 ‘인간 사냥’을 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확인을 회피해 왔던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야말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는 순간인 것이다.

2장에서는 수기 속에서의 신의 등장을 중심으로 다무라가 신을 갈구하는 장면과 신의 존재로 인해 다무라의 행동이 변화한 장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했다. 다무라는 홀로 길을 걸으며 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을 함께 떠올렸고 이내 빛나는 십자가를 발견한다. 십자가라는 종교적 상징물은 다무라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으며, 고독과 불안을 느끼고 있던 다무라에게 내면적 동요를 일으키고 신앙적 상념을 일깨웠다. 그리고 다무라는 꿈속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위해 교회로 향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존재는 없었으며 다무라는 구원을 단념한다. 다무라는 고독한 전장을 걸으며 신의 존재를 떠올렸고, 빛나는 십자가의 발견은 다무라의 신앙적 상념을 고조시켰다. 죽음을 각오하고 구원을 위해 교회로 향한 다무라의 모습은 다무라가 자신의 삶과 내면에 신을 연결 시키고 싶었던 강렬한 욕구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구원을 단념하는 것으로 다무라와 신의 관계는 끊어진 듯 보였지만, 다무라가 극심한 굶주림 끝에 자신을 먹어도 좋다는 장교의 시체에 손을 대자 신의 존재는 왼손이 오른손을 저지하는 신체 좌우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개입하며 다무라의 완전한 도덕적 추락을 막는다. 또한 다무라가 들판의 꽃을 보고 식욕을 느낀 장면에서도 신의 존재는 목소리의 형태로 개입하여, 다무라에게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을 제시한다. 다무라는 배고픔에 다시 장교의 시체로 돌아와 식인을 시도했지만, 1차적 식인 저지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시체는 이미 부패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한다. 결국 신의 개입이 두 차례에 걸쳐 다무라의 식인을 저지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무라에게 개입된 신의 존재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식인 행위를 멈추게 했고, 다무라의 완전한 도덕적 추락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3장에서는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무라는 원숭이 고기의 정체를 알고 나서 자신의 추락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다무라는 식인을 행하려는 나가마쓰를 보며 신의 분노를 대행하려 했고, 시체를 보면서도 식욕이 아닌 구토감을 느낀다. 이 부분에서 다무라는 자신이 인육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숭이 사냥을 목격함으로써 진실을 인지했기에 다무라는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게 됐으며, 다시 인육 문제와 마주하자 추락한 도덕

성을 회복시킬 계기가 생겼고 도덕성 회복 욕구가 작용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 즉 자신은 타의로 식인을 행한 것이며 인육 문제를 혐오하는 도덕적 인간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또한 포로병원에서는 밥상을 앞에 두고 의식을 행함으로써 도덕성 회복의 욕구를 표출했으며, 그 의식을 행한 이유는 밥상의 음식물은 결국 생명체였다는 것이다. 이는 들판에서 신이 목소리의 형태로 다무라에게 제시한 생명은 존엄하다는 도덕과 겹쳐지며,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먹고 그것을 인지한 다무라가 죄의식을 드러낸 행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기억이 삭제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도덕성 회복의 욕구와 다무라에게 제시된 생명 존엄의 도덕이 무의식중에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귀환 후, 다무라는 병원에서 전쟁에 대한 신문 보도를 보고 거부감을 느낀다. 결국 자신의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해버린 궁극적인 원인은 전쟁이었으며,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필리핀 전장에 보내진 것을 비판하며 내면에 있는 죄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무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이 죽인 필리핀 여성과 나가마쓰의 미소를 근거로 식인을 부정하며, 자신이 느낀 식욕은 인간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는 자기 변호적 추측을 한다. 이는 환상이라는 무의식 공간 속에서 다무라가 도덕성 회복의 욕구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완전한 도덕적 추락 이후 다무라는 시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인육 문제에 대한 불쾌감, 식인 행위 부정, 반전 의식, 무의식중 드러낸 도덕과 죄책감으로 도덕성 회복 욕구를 표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다무라의 수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다무라의 수기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광기 속에서 쓰여진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환상 속에서 다시 신의 존재를 소환할 때, 다무라의 '만약'이라는 가정 표현의 사용은 수기 내용의 진위를 더욱더 불명확하게 만들었다.

망각된 영상을 떠올리는 과정에서도 다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하여 신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으로 다무라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수기에서 시도한 신의 존재를 통한 자기변호와 도덕성 회복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만약'이라는 가정 표현을 사용하며 수기 속 신의 존재를 유지시킨다.

다무라의 수기는 도덕성 회복 욕구가 잠재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것이 곳

곳에서 드러났다. 수기 속에서 신의 존재는 다무라의 식인 행위를 저지시켰으며 생명 존엄의 도덕을 제시했다. 다무라의 몸에 개입한 신의 존재가 다무라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었기에 완전히 추락한 도덕성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의 존재를 수기에 적지 않았다면 다무라의 도덕성 회복 시도는 불가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남게 된다. 결국 다무라는 인육을 먹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었기에 그 도구로서 신의 존재를 수기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들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과 내면을 면밀히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인육 문제를 부각시켜 전쟁 중의 인간의 도덕적 추락을 제시했으며,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수기 속의 신은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국내논문>

- 신지숙(2007)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들불(野火)』론 - 가능성으로서의 신」 『일본학연구』(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 이금재(2000)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 나타난 전쟁과 구원 -〈신〉에 대한 표현변화를 통하여」 『일본어문학』(8) 한국일본어문학회
- 우연희(2007) 「오오카 쇼헤이 『들불』론-"비틀림"의 내면 풍경과 자연-」 『일본어문학』(35) 한국일본어문학회
- 이시준(2009)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 나타난 신-국가, 집단과 개인과의 거리를 매개로」 『문학과 종교』(14(3))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우연희, 신인섭(2021) 「오오카 쇼헤이의 『들불(野火)』 다시 읽기 -병사의 이동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88) 한국일본어문학회

<국외서>

- 井上ひさし, 小森陽一 編著(2003) 『座談会 昭和文学史 第四巻』 集英社
- 大岡昇平(1954) 『野火』 新潮文庫
- 大岡昇平, 三島由紀夫集(1969) 『現代日本文學大系85 大岡昇平,三島由紀夫集』 筑摩書房
- 大岡昇平, 埴谷雄高, 野間宏, 大江健三郎(1987) 『昭和文学全集16』 小学館
- 大江健三郎 他(1989) 『大岡昇平の世界』 岩波書店
- 川西政明(2001) 『昭和文学史 中巻』 講談社
- 陣野俊史(2011) 『戦争へ、文学へ 「その後」の戦争小説論』 集英社
- 『社会文学事典』 刊行会(2007) 『社会文学事典』 冬至書房
- 中村光夫, 臼井吉見, 平野謙(1959) 『現代日本文學史』 筑摩書房
- 中井正義(1989) 『大岡昇平ノート』 沖積舎
- 藤中正義(1996) 『周縁者の精神』 三一書房

<국외논문>

- 石田仁志(1997) 「大岡昇平『野火』論<時間>と自我」 『昭和文学研究』(34) 昭和文学会
- 竹田純郎(2020) 「大岡昇平の「カニバリズム」論」 『金城学院大学論集. 人文科学編』17(1)
金城学院大学
- 歳森貞美(1969) 「『野火』論: 大岡昇平における中原中也」 『日本文學』(33) 東京女子大学
- 水溜真由美(2020) 「極限状況下における倫理: 武田泰淳 「ひかりごけ」, 大岡昇平 『野火』,
同 『俘虜記』」 『層: 映像と表現』(12)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院映像・現代文化
論研究室

<ABSTRACT>

A Discussion on 『Fire in the Field』 by Ooka Shohei
- Focusing on the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the need for God -

Kim, Gyeong-min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ire in the Field” is a novel of Ooka Shohei based on his own war experiences. Most critics cite “Fire in the Field” as a masterpiece of postwar literature, and it is praised as a work that depicts the inner lives of people in the extreme conditions of war. Therefore, preceding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ssue of cannibalism that arises in the extreme situation of war, the structure of the work, and research on God and salvation. The study accepts and inherits the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 and reexamines the existence of God, which is revealed in the main character Tamura's memoir, in connection with the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attempts to explain the existence of God revealed in Tamura's own memoir.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reason why it was necessary to include the presence of God in it.

The first chapter focuses on Tamura's cannibalism and the process by

which morality deteriorates. Tamura's latent cannibalistic desire begins to surface when he becomes starved. Tamura ate monkey flesh given by Nagamatsu without knowing the true nature of it. For this, it is difficult to see him as a complete degradation of morality. Tamura wanted to avoid the fact that the dried monkey flesh was human flesh, but in the end, the moment he witnessed a hunting scene and faced the truth was the moment when Tamura's morality completely collapsed.

The second chapter delves deeply into Tamura's longing for the existence of God and explo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God's existence had on his life. Tamura found a cross while wandering alone on the battlefield, which made him realize his religious thoughts. Tamura, risking his life, headed towards the church, showing his longing for the existence of God in his quest for salvation. In addition, the presence of God intervened in Tamura's life in the form of left and right division of his body and voices, preventing Tamura's complete moral degradation.

The third chapter provides an overview of Tamura's desire to recover his sense of morality. After Tamura's morality completely deteriorated, he tried to show that his cannibalism was not arbitrary and was done out of someone else's will, and that he was a moral being who abhorred the consumption of human flesh. He also expressed his guilt and morality by holding a unique ritual in front of food, and feeling a sense of rejection about the war. Tamura continues to deny cannibalism, and at the same time interprets his own cannibalism as a reaction to take revenge against humans. This scenes reveal his desire to restore his completely degraded morality.

The Fourth chapter talks about the existence of God as summoned in the memoir.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memoir, and Tamura's suspicions about God weakened the presence of God. However, if the existence of God were dismissed, it would be impossible

for Tamura to attempt self-defense and restoration of morality that Tamura attempted in his memoir. Therefore, it was necessary for Tamura to maintain the existence of God within the memoir. Tamura tried to regain his morality through the existence of God in the memoir, and even though he consumed human flesh, the presence of God was essential for his attempt to remain a moral human being and to recover his morality.

As explored in the previous analysis of presence of god in “Fire in the Field” functions as a pivotal tool for the restoration of Tamura's deteriorated morality. It can be argued that without revealing the existence of God from his memoir, Tamura's redemption and moral restoration would be unattainable.